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동방신기 믹키유천 드라마 주인공으로

최근 그룹 활동을 중단한 동방신기의 믹키유천이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가제)의 주인공으로 낙점됐다고 드라마 홍보사인 와이트리 미디어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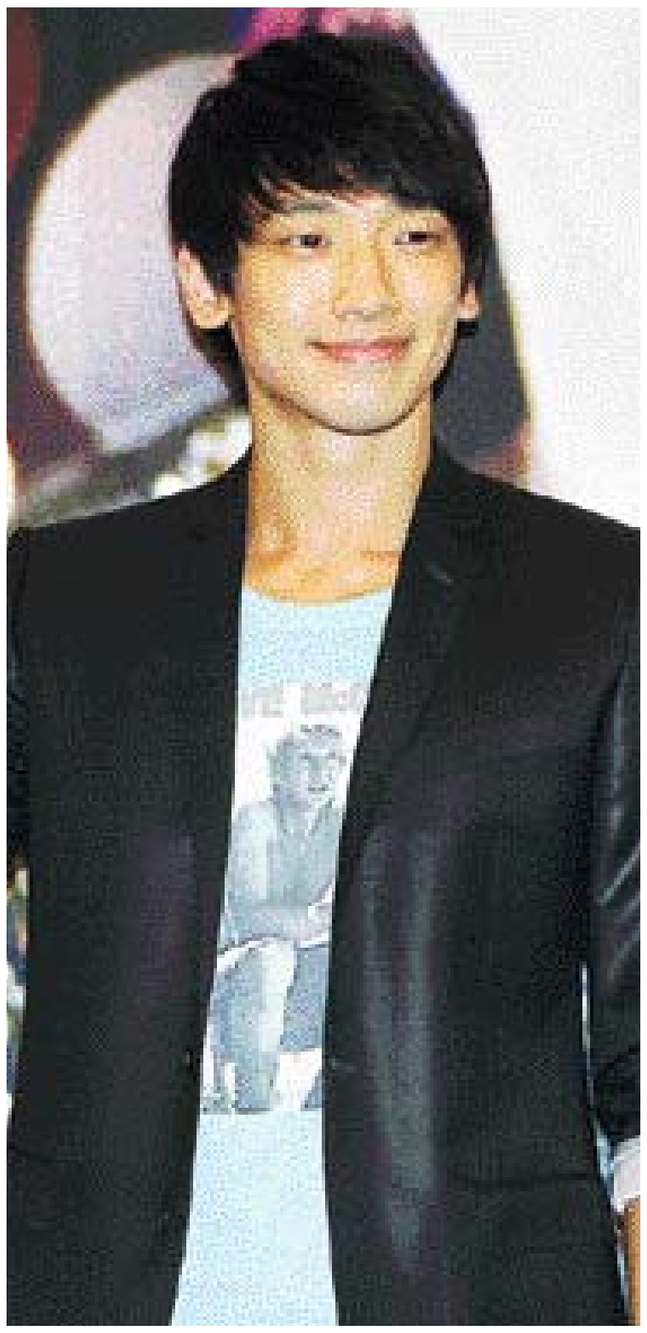
믹키유천은 대대로 권력을 잡아온 노론 명문가의 외아들로 남장여자인 김윤희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이선준 역을 맡았다.

'성균관 스캔들'은 소설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을 원작으로 한 청춘 사극으로, 병약한 남동생을 대신해 남장을 하고 성균관에 들어가게 된 김윤희와 이선준, 통제 불능 반항아 문재신, 주색잡기와 음주가무의 달인 구용하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다.

"강한 남자 됐다고 매일 최면 건다"

스페셜 음반 '백 투 더 베이직' 발매

비



"데뷔 8년간 많이 다치면서 컸다는 느낌이 들어요. 상처에 굳은살이 박이면서 비로소 성인이 됐죠. 가장 큰 상처는 저 자신의 나약함이었어요."

스페셜 음반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을 발매한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 · 28)는 기자간담회에서 음반 제목처럼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으로 평생을 살려면 절제하고 감춰야 할 것이 많다"면서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야할 때는 손을 놔버리고 싶어 흔들렸다. 요즘 아침마다 거울 보는 버릇이 생겼는데 눈을 보며 최면을 건다. 나 자신의 나약함을 이겨내면서 한 차원 더 발전했고 강한 남자가 됐다"고 말했다.

마음가짐은 처음 데뷔하던 순간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음악과 이미지는 변화를 추구했다.

"타이틀곡은 댄스 아닌 발라드 가수의 변화는 팬에 대한 예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내세운 댄스곡 대신 직접 쓴 발라드곡 '널 붙잡을 노래'를 타이틀로 내세웠다. 또 강한 남성의 이미지로 채웠던 음반 재킷에는 단발머리에 아랫눈썹을 붙인 중성적인 비가 담겼다.

"타이틀곡이 발라드여서 의외였을 겁니다. 비라는 이름으로 댄스곡을 주로 보여줬는데, 가수라면 변화가 필요했고 그게 대중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죠. 자극적인 모든 치장을 빼고 담백하게 나오고 싶었어요. 이 곡은 2년 전 만들어둔 곡으로 빨리 보여주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그는 트레이드 마크인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팬들을 위해 또 다른 자작곡 '힙 송(Hip Song)'을 후속곡으로 정했다. 두 곡을 통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즐겁도록 할 것이라는 복안이다.

아이돌 그룹이 득세하는 시장에서 복귀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

"저는 가요계의 중추신경이에요. 제 위로 박진영, 양현석, 신승훈, 김건모 형이 있고 제 밑으로 아이돌 후배들이 있죠. 서로 시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멀리 보고 승부를 볼 곳은 아시아 시장과 미국이죠. 요즘 아이돌 그룹은 실력이 뛰어나니 그들이 제자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줘야죠. 부담보다 동료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요."

"미국은 생각보다 무서운 나라 먼저 배우로 자리잡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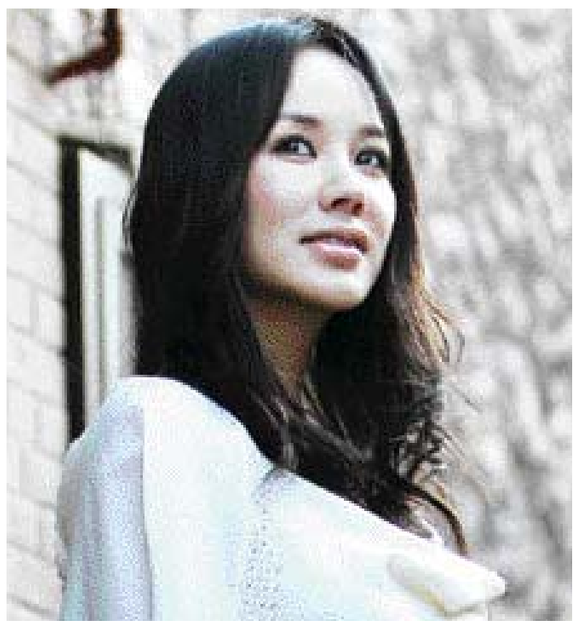
그는 올해 가수와 연기자 사이를 오가며 활동할 계획이다. 천성일 작가가 쓰는 드라마 '도망자'(가제) 등 가을께 출연할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출연을 고심 중이다. 이처럼 활동의 무게 중심은 한국에 두되 6월 일본 투어 등 아시아 활동도 계속된다. 세계의 중심은 아시아이고,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할리우드 영화 '닌자 어쌔신' 프로모션 차 유럽, 미국, 아시아 등지를 돌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걸 깨달았다"며 "영화 촬영을 위해 8개월간 못 먹는 고통도 따랐지만 이 영화를 통해 액션 스타라는 호칭을 얻었고 내 얼굴도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시장에서는 배우로 잘 풀리는 단계인데, 액션 스타라는 타이틀을 벗고 좀 더 유명해졌을 때 미국에서 음반을 내는 게 성공률이 높다"며 "미국은 생각보다 무서운 나라여서 말로만 진출한다고 음반을 냈다가는 큰 코다친다. 시기보다 성공이 중요하다. 먼저 배우로 자리잡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화 '베스트셀러' 엄 정 화

"두부·채소만 먹고 7kg 감량 힘들었지만 보람 많이 느껴"

"평온 한 건 좋은데 만날 똑같으면 인생이 재미없잖아요. 이번 영화에서는 할 게 많았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배우로서는 신나는 일이었죠."

마흔을 한 해 앞둔 엄정화는 영화 '베스트셀러'를 찍으면서 달리고, 넘어졌다. 호러와 스릴러가 혼재한 이 영화에 추격신이 많아서다.

엄정화는 신경쇠약에 걸린 베스트셀러 작가 백희수를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 7kg을 감량하기도 했다. 엄정화 스스로 "몸을 혹사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영화"라고 자평했던 '베스트셀러'가 15일 개봉한다.

엄정화는 인터뷰에서 "영화를 찍을수록 액션 장면이 새롭게 추가됐다. 몸이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찍고 나니 보람찼다"고 했다.

'베스트셀러'는 인기작가 백희수가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공포스런 상황을 담은 영화. 백희수의 남편으로 출연한 류승룡이 기자간담회에서 "엄정화를 위한 영화"라고 말했을 정도로 '베스트셀러'는 엄정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화다.

"2008년 겨울에 시나리오를 처음 접하고, 꼭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호러나 스릴러물이 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거의 일년 가까이 기다린 끝에 작년 11월에 촬영에 들어갔죠."

각오는 했지만, 촬영과정은 고됐다. 신경쇠약에 걸린 희수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가녀린 몸부터 만들어야 했다.

엄정화는 꼬박 한 달간 두부와 채소만 먹었다고 한다. 술을 마실까 봐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제했다. 하루에 50분씩 두 차례에 걸쳐 달리기를 했고, 반신욕도 했다. 그렇게 한 달 반을 하고 나니 조금씩 몸무게가 줄기 시작해 7kg 감량에 성공했다.

"배고프면 짜증이 많이 나는 편인데, 그런 점에서 시작부터 힘들었어요."(웃음) 원톱 주연이 반가웠지만 부담감도 컸다. 홀로 영화를 이끌고 가는 것은 '오로라 공주'(2005) 이후 5년 만이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엄정화는 가요계와 영화계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다. 그는 "올해나 늦어도 내년쯤에는 가수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수와 배우 모두 애정이 가기 때문에 둘 다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연합뉴스